

vol.  
**03**

2018  
October

# Soopfo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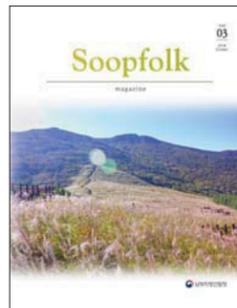
magazine



# Contents

2018 October

남부지방산림청 「Soopfolk」 2018년 10월 가을호 기관소식지



「Soopfolk」는 '숲(soop)'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Kinfolk'의 합성어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혜택을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즐겁게 국민들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 정보를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Soopfolk

2018 남부지방산림청 기관소식지

## 멋있는 숲 美 | 04

영남알프스 간월재 역사숲에 취하다.



## 편안한 숲 休 | 12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으로 가자!



## 재밌는 숲 樂 | 20

미세먼지 청정 필터, 도심과 자연을 이어주는 도시숲



## 맛있는 숲 味 | 26

그윽한 맛과 향을 지닌 가을의 대명사, 송이버섯!



## 안전한 숲 守 | 30

산과 나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그 길, 임도(林道)



## 알리는 글 | 36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Yeongnam Alps

## 영남알프스 간월재 억새숲에 취하다.

글·사진 | 남시연(여행작가, 파워블로거)

여름에 바다를 찾는다면 가을에는 역시 산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단풍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풍이 채 물들기 전인 10월. 아름다운 단풍을 기다리는 등산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불산 간월재 억새숲이다.



**가을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곳 등산객들의 낙원, 억새평원**

신불산 억새숲(억새평원)은 산림청이 선정한 '보전·연구형 국유림 명품숲' 10곳 중 한 곳이다. 산 정상에서 넓은 억새숲과 평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공간. 울산 12경에 속한다. 신불산 능선을 따라 약 3km의 억새평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무대. 은빛 물결이 가을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곳. 가을 등산객들의 낙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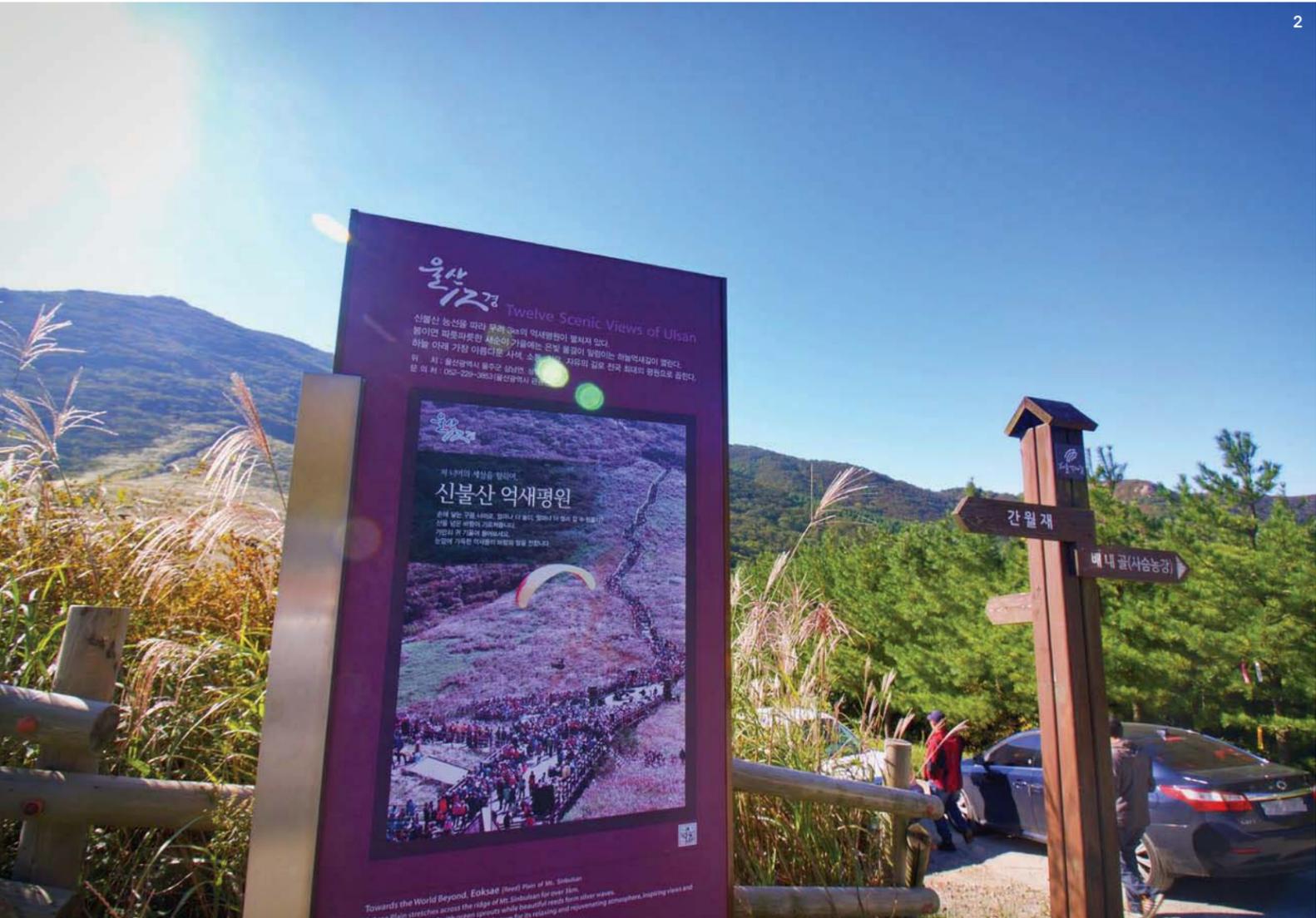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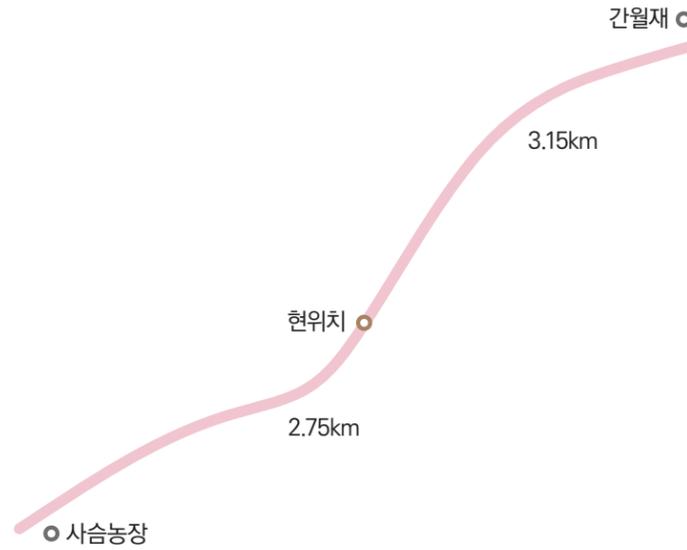
**9개의 산이모인 영남 알프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에서 간월재는 관문으로 통한다. 영남알프스는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 형성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9개의 산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수려한 산세와 풍광이 유럽의 알프스 못지않다 하여 이름 붙였다고 한다. 어느 한 곳이 영남알프스가 아니고 전체가 영남알프스인 셈이다.

2. 울산12경 표지판 3. 배내2 공영주차장 4. 간월재 이정표

**Travel map**

\* 간월재로 향하는 이정표 자세히보기



**산은 오른 자에게만 정상을 허락한다. 간월재 코스**

전체면적 255km<sup>2</sup> 중 여러 곳에 억새평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에 자리잡은 간월재에만 약 10만 평의 억새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월에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산림청장배 전국 오리엔티어링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산은 오른 자에게만 정상을 허락한다. 고되고 힘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멋진 풍경과 뿌듯함, '해냈다'는 자신감이 등산의 매력이 아닐까? 영남알프스 억새숲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그러나 등산 마니아가 아닌 이상 억새평원을 보기 위해 10km가 넘는 난이도 '상' 코스를 10시간 왕복하는 건 힘든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간월재 억새숲으로 가는 길 중에는 쉬운 코스가 있어서 초보 등산객이나 일반인들이 찾기도 부담이 없다. 제일 난이도가 낮은 코스는 배내골(사슴농장)에서 출발하여 간월재로 향하는 하늘억새길이다.

먼저 '배내통하우스' 또는 '상북배내2 공영주차장'을 검색해서 찾아간다. 상북배내2 주차장은 사슴농장 코스로 올라가는 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주차비는 무료이고 화장실이 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서둘러 가야 한다. 사슴농장을 거치는 코스는 임도를 따라 걸을 수 있어서 등산이 아닌 산책처럼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배내골(사슴농장)에서 간월재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다.



### 시작하는 길

안동에서 새벽 5시에 승용차로 출발하여 아침 7시 30분경에 주차장에 도착했다. 간단한 스트레칭 후 주차장 건너편에 '진입 금지' 이정표와 컨테이너 쪽으로 올라가면 된다. 완만한 경사의 어느 정도 포장된 길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라서 편안하다.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로, 혼자 간월재에 오르는 청춘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보통 산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의 전유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신불산, 특히 간월재는 쉬운 코스를 마련해둔 덕분에 남녀노소, 나이 구분이 없는 곳이었다. 심지어 자전거로 간월재에 도전하는 라이딩 동호회분들도 만날 수 있었다.

사슴농장 코스는 1시간 30분 정도를 걸으면 간월재에 도착한다. 왕복 12km 정도다. 길 중간에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는데 총 4개가 있다. 길은 하나(one way)라서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간월재에 닿는다. 코스 곳곳에 휴식을 위한 벤치가 마련돼 있으며 강아지풀과 해국 등이 말없이 관람객들을 반겨준다.



5. 간월재 올라가는 길 6. 간월재 억새숲 전경 7. 간월재휴게소



간월재는 해발 900m에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높은 고도에서 바라보는 멋진 능선이 눈에 들어온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풍경이다. 흰하게 보이는 산등성이를 뒤로하고 올라가다 보면 곧 목적지인 간월재 억새숲에 도착한다. 간월재에는 은빛으로 흔들리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다. 이 모두가 억새들이다. 하늘을 찌를듯한 산세와 햇살을 받아 빛나는 평원, 이 빼어난 경관은 직접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다. 영남알프스라는 글귀가 있는 포토존과 간월재 안내도, 그리고 바람도 쉬어가는 간월재 휴게소를 만난다.

간월재 휴게소의 인기상품은 역시 컵라면이다. 간월재의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컵라면은 정말이지 맛있다. 휴게소에서 라면을 구매하면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다. 현금만 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카드결제(현금 제로화)를 권장하는 곳이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각종 과자류와 생수,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며 주류와 일회용품은 팔지 않는다.



간월재 휴게소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일품이다.  
울산시가지  
전체가  
저만치 보인다.

### 10월의 가을 정취를 느낄수 있는곳,

토함산과 무룡산, 문수산, 국수봉 등 산맥이 모두 발아래에 있다. 간월재 표지석은 누구나 한 번씩 사진을 남기는 으뜸가는 포토존으로 놓쳐서는 안 될 공간으로 손꼽힌다.

10월의 간월재는 가을 정취가 절정에 달해있다. 간월재 휴게소를 중심으로 억새숲이 한창인데 특히 신불산 정상 방향이 아름답다. 산책 데크를 마련해 두어서 억새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이날(10월 3일)에는 간월재에서 마침 울주 오디세이가 열렸다. 아름다운 음악과 예쁜 억새들 품이라면, 술 한 잔 없이도 취할 수 있다.

간월재에만 있기에는 아쉬워서 간월산 정상과 배내봉으로 향하는 길로 올라갔다. 이 코스에서는 간월산 규화목과 목재화석을 볼 수 있다. 간월재보다 높아서 간월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다. 적당한 곳을 골라 뒤를 돌아보니 '하늘억새길'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늘에서 억새를 내려다보는 듯하다. 주변 산맥과 억새숲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울산 시가지 풍경도 예술 그 자체. 높은 곳에서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다.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 돌 위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8. 울산시가지 전경 9. 간월재 표지석 10. 간월재 억새숲 데크 11. 영남알프스 포토존

### 내려가는 길

간월재를 마음껏 감상하고 다시 내려가는 길. 그사이 해는 중천에 자리 잡았고 그만큼 관광객들도 늘어났다. 내려가는 내내 올라오는 관광객들을 지나치면서 간월재 억새숲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내려갈 때의 풍경은 오를 때와는 또 달라서 다채롭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할 때만 해도 피곤하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간월재에서 상쾌한 하루를 보냈다. 뛰어난 경치와 걷기 좋은 코스, 편리한 주차와 접근성 등 남녀노소 누구나 가을을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 \* 신불산 억새숲 정보

- ① 주소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로 1447
  - ② 네비게이션 검색 : 배내통하우스 또는 상북배내2 공영주차장 검색
  - ③ 울산 대운산 치유의숲 : 052-255-9800
- 홈페이지 : <http://www.yeongnamalps.kr> (영남알프스 홈페이지)  
이용료 : 무료  
코스 : 배내골(사슴농장)~간월재, 난이도 하(下)  
거리 : 왕복 12km 정도(왕복 3시간 코스)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푸르던 들판은 가을 햇살에 각각 은빛과 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울긋불긋한 단풍들로 여름의 기운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하고 있는 달음산(達陰山)은 높이 588m로 그리 높진 않지만 기장 8경 중 제1경을 차지하는 명산이다. 급경사를 이룬 험한 구간이 많아 원동 천태산, 토곡산과 더불어 부산 인근의 3대 악산이라 불리지만 접근하기가 쉽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친근한 산이기도 하다. 동북아 해양수도이자 국내 여행 일번지인 부산! 이곳, 기장군에 도심을 기반으로 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이 지난 9월 11일 개장식과 함께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국립달음산  
자연휴양림으로  
가자!

산도보고 바다도보고,

## 최적의 휴양림

휴양림개장 / 방문자센터 / 잔디광장 / 숙박시설

### 휴양림개장

달음산자연휴양림은 2012년부터 총 7여 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산과 바다를 모두 보고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휴양림으로 대도시에 들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은 2018년도에 국립자연휴양림 중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인 \*BF(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곳이다.

### \* BF(Barrier Free)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

### 방문자센터와 잔디광장, 그리고 숙박시설

실내교육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방문자센터 전면으로 야외활동이 중심이 되는 잔디광장이 펼쳐져있다. 그 주변으로 빨강, 주황, 노랑 피가 둘러져 있는 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휴양림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동심을 키워주기 위해 토끼, 곰, 다람쥐 등 귀여운 동물 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해 동화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1동이 각각 1, 2층으로 따로 객실이 운영되어 총 7동 14객실이 며 도시민의 휴양수요를 반영해 모든 객실은 소규모인 4~5인실이다.

어린이들 청소년과 함께 손잡고  
천천히 걸으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



2. 잔디광장 조형물 3-4.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개장식 5. 동물 캐릭터 조형물과 숙박시설 전경 6. 숙박시설 7. 휴게시설

특히 방문자센터 2층 회의실은 총 50여 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다고 하니 단체 방문객들의 행사나 워크숍을 진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숙박시설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휴게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천천히 걸으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또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지능과 감성 그리고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탐방 및 숲체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숲해설과 솟대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등의 활동이 가능한 산림체험 프로그램(유료),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오감을 통한 우리 식물에 대해 알아가는 숲속에서의 자연학습 체험교육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산도보고 바다도보고,  
**주변볼거리**

일광해수욕장 / 용궁사 / 장안사 / 아홉산 등 ...

**관광지**

부산은 설명하지 않아도 가볼 만한 관광지가 넘쳐나는 곳이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로 대한민국 관음성지(觀音聖地)의 하나인 용궁사와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는 장안사, 일광해수욕장, 아홉산숲 등 볼거리가 수없이 많다.

이 가을, 인근 대도시에서 가깝고 푸른 숲에서 맘껏 즐기며 멀리 바다 풍경까지 바라볼 수 있는 달음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보자!



부산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인 만큼  
 주변에 볼 요소들이  
 무궁무진하다



8-10. 해동용궁사 11. 아홉산



12



13

12. 달음산자연휴양림 전경 13. 숙박시설 근처 산책로

### Travel tip

####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이용요금

| 구분  | 기준    | 요금(원)   |       | 비고  |
|-----|-------|---------|-------|-----|
|     |       | 개인      | 단체    |     |
| 입장료 | 어른    | 1인 x 1일 | 1,000 | 800 |
|     | 청소년   | 1인 x 1일 | 600   | 500 |
|     | 어린이   | 1인 x 1일 | 300   | 200 |
| 주차장 | 경형자동차 | 1일 x 1대 | 1,500 | -   |
|     | 중·소형  | 1일 x 1대 | 3,000 | -   |
|     | 대형    | 1일 x 1대 | 5,000 | -   |

| 구분    | 기준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비고     |
|-------|----------|-----------|----------|--------|
| 숲속의 집 | 4인 (30㎡) | 1일 x 1동·실 | 37,000   | 67,000 |
| 연립동   | 5인 (40㎡) | 1일 x 1동·실 | 46,000   | 85,000 |
| 회의실   | 2층 (강당)  | 4시간 이내    | 120,000  |        |
|       |          | 4시간 초과    | 240,000  |        |

1.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8월 24일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5.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물에 대해 알아가며,

오감을 통한

자연학습 체험을 할수있는곳

”



#### \*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용길 299-106
- 📞 프로그램 : 숲해설, 산림체험 프로그램(유료), 자연 학습 체험교육
- 👥 수용인원 : 1일 100명~150명
- 🕒 [숙박시설] 당일 15:00 ~ 익일 12:00 / [일일개장] 09:00 ~ 18:00
- ☎ 051-722-3023 또는 <http://www.huyang.go.kr>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유명산     | 경기. 가평. 설악. 유명산길 79-53   | 031) 589-5487   |
| 2. 중미산     | 경기. 양평. 옥천. 중미산로 1152    | 031) 771-7166   |
| 3. 산음      | 경기. 양평. 단월. 고북길 347      | 031) 774-8133   |
| 4. 운악산     | 경기. 포천. 화천. 화동로 184번길 39 | 031) 534-6330   |
| 5. 아세안     | 경기. 양주. 백석. 기산로 472      | 031) 871-2796   |
| 6. 청태산     | 강원. 횡성. 둔내. 청태산로 610     | 033) 343-9707   |
| 7. 삼봉      | 강원. 홍천. 내. 삼봉휴양길 276     | 033) 435-8536   |
| 8. 용대      | 강원. 인제. 북. 연화동길 7        | 033) 462-5031   |
| 9. 방태산     | 강원. 인제. 기린. 방태산길 241     | 033) 463-8590   |
| 10. 북주산    | 강원. 철원. 근남. 하오재로 818     | 033) 458-9426   |
| 11. 대관령    | 강원. 강릉. 성산. 삼포암길 133     | 033) 641-9990   |
| 12. 미천골    | 강원. 양양. 서. 미천골길 115      | 033) 673-1806   |
| 13. 가리왕산   | 강원. 정선. 정선. 가리왕산로 707    | 033) 562-5833   |
| 14. 백운산    | 강원. 원주. 판부. 백운산길 81      | 033) 766-1063   |
| 15. 용화산    | 강원. 춘천. 사북. 사어골길 294     | 033) 243-9261   |
| 16. 두타산    | 강원. 평창. 진부. 아차골길 132     | 033) 334-8815   |
| 17. 검봉산    | 강원. 삼척. 원덕. 임원안길 525-145 | 033) 574-2553   |
| 18. 속리산말티재 | 충북. 보은. 장안. 속리산로 256     | 043) 543-6282   |
| 19. 황정산    | 충북. 단양. 대강. 황정산로 239-11  | 043) 421-0608   |
| 20. 상당산성   | 충북. 청원. 내수. 덕암2길 162     | 043) 216-0052   |
| 21. 회리산해송  | 충남. 서천. 중천. 회리산길 206     | 041) 953-2230   |
| 22. 오서산    | 충남. 보령. 청라. 오서산길 531     | 041) 936-5465   |
| 23. 용현     | 충남. 서산. 운산. 마애삼존불길 339   | 041) 664-1978   |
| 24. 덕유산    | 전북. 무주. 무풍. 구천동로 530-62  | 063) 322-1097   |
| 25. 회문산    | 전북. 순창. 구림. 안심길 214      | 063) 653-4779   |
| 26. 운장산    | 전북. 진안. 정천. 휴양림길 77      | 063) 432-1193   |
| 27. 변산     | 전북. 부안. 변산. 변산로 3768     | 063) 581-9977   |
| 28. 천관산    | 전남. 장흥. 관산. 칠관로 842-1150 | 061) 867-6974   |
| 29. 방장산    | 전남. 장성. 북이. 방장로 353      | 061) 394-5523   |
| 30. 낙안민속   | 전남. 순천. 낙안. 민속마을길 1600   | 061) 754-4400   |
| 31. 진도     | 전남. 진도. 임회. 동령개길 1-92    | 061) 542-2346   |
| 32. 청옥산    | 경북. 봉화. 석포. 청옥로 1552-163 | 054) 672-1051   |
| 33. 통고산    | 경북. 울진. 금강송. 불영계곡로 880   | 054) 783-3167   |
| 34. 칠보산    | 경북. 영덕. 병곡. 칠보산길 587     | 054) 732-1607   |
| 35. 검마산    | 경북. 영양. 수비. 검마산길 191     | 054) 682-9009   |
| 36. 운문산    | 경북. 청도. 운문. 운문로 763      | 054) 373-1327   |
| 37. 대야산    | 경북. 문경. 가은. 용추길 31-35    | 054) 571-7181   |
| 38. 지리산    | 경남. 함양. 마천. 음정길 152      | 055) 963-8133   |
| 39. 남해편백   | 경남. 남해. 삼동. 금암로 658      | 055) 867-7881   |
| 40. 신불산폭포  | 울산. 울주. 상북. 청수골길 175     | 052) 254-2123-4 |
| 41. 달음산    |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용길 299-106  | 051) 722-3023   |

1. 예약사이트 주소 : <http://www.huyang.go.kr>
2. 콜센터 전화번호 : 1588-3250 | ARS 서비스 : 1800-9448

# urban forest

미세먼지 청정 필터,  
도심과 자연을  
이어주는 도시숲

글·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오롯이 나 혼자 보내는 시간, 모두 꿈꾸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가까운 도시숲으로 떠나보자. 녹색으로 둘러싸인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2



3



4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로 유명한 고장, 경북 울진에도 지난 2015년 12월에 울진국유림관리소에 도시숲이 조성되었다. 이곳은 산림청과 울진군, 기타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국유림관리소 유휴부지 내에 조성한 도시숲이다. 총 2ha 면적에 큰키나무 약 4천 그루와 작은키나무 약 17천 그루를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 부지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2017년에는 도시숲에서 울진군 주관으로 동거부부 합동 전통혼례식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으로 시집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던 7쌍의 다문화가정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도시숲이란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하며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도시 생활권에 조성된 숲을 말한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도시숲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해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준다. 보통 나무 한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약 47그루의 흡수량은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과 동일하다고 한다.

도시숲의 이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 속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평균 3~7°C 낮춰준다고 한다. 또한 도시숲의 큰 나무들은 자연방음벽으로 도시 속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계절을 느끼게 해준다.

“ 도시숲에서 자연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며 충전하자! ”

2.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도시숲 전경 3.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도시숲 휴게 시설 4.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도시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5. 구미국유림관리소 청사주변 녹색쌈지숲 6.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도시숲 개장식

남부지방산림청 도시숲 조성사업

남부지방산림청 내에서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2001년에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시책사업과는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관리소 청사주변(구미시 오태동)의 도로와 연결하여 방치된 국유지 0.1ha에 숲을 조성하고 벤치 등을 시설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지역주민, 시청의 호응과 함께 지역 언론으로부터 찬사가 잇달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구미국유림관리소의 도시숲 조성사례를 계기로 2003년부터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였다.



5



6



7

**인근에서 즐길수있는 최대장점 도시숲,**

도시숲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에서 얻는 다양한 혜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크게 작용한다. 부담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도시숲에서 자연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며 늦가을의 감성을 충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7.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도시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8. 2016년 동거부부 합동 전통 혼례식 9. 울진국유림관리소 내 도시숲 휴게 시설



8



9



**Information**

**알기쉬운 산림정보 '도시숲의 종류'**

- 1\_ 도시산림공원 : 국민의 건강증진과 숲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및 주변의 토지와 산림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 2\_ 생활환경숲 : 도시의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 및 공동주택 주변, 병원 및 요양소 주변, 공장 및 공단의 주변, 인공지반 및 건물 등의 공간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 3\_ 가로수, 가로숲 : 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가로수·가로숲은 도시숲과 도시를 이어주며, 도시생태계 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숲
- 4\_ 명상숲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도시숲
- 5\_ 전통마을숲 : 숲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
- 6\_ 경관숲 : 휴양, 관광지, 하천, 연안 등과 인접한 우수한 산림경관자원의 보전·형성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과 수목

**남부지방산림청 내 국유림 도시숲 조성현황**

| 조성년도 | 관리소       | 구 분   | 개 소                    | 조성면적(ha) |
|------|-----------|-------|------------------------|----------|
| 합 계  |           |       | 11개소                   | 74.8     |
| 2003 | 소 계 (3개소) |       |                        | 3.6      |
|      | 영 덕       | 녹색섬지숲 | 포항시 장성동 산92-1          | 1.1      |
|      | 구 미       | 산림공원  | 구미시 상모동 산3-1           | 2.4      |
|      | 구 미       | 녹색섬지숲 | 구미시 오태동 6블럭 2롯데        | 0.1      |
| 2004 | 소 계 (1개소) |       |                        | 21.0     |
|      | 양 산       | 산림공원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산135-6    | 21.0     |
| 2005 | 소 계 (1개소) |       |                        | 20.0     |
|      | 양 산       | 산림공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산33      | 20.0     |
| 2008 | 소 계 (2개소) |       |                        | 11.3     |
|      | 영 덕       | 산림공원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196외 1 | 3.3      |
|      | 양 산       | 산림공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81-1   | 8.0      |
| 2015 | 소 계 (2개소) |       |                        | 4.9      |
|      | 영 주       | 산림공원  | 영주시 가흥동 산8-3외 1        | 2.7      |
|      | 울 진       | 산림공원  | 울진군 울지읍 읍내리 205-2외 7   | 2.2      |
| 2017 | 소 계 (2개소) |       |                        | 14.0     |
|      | 구 미       | 생활환경숲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산6         | 8.8      |
|      | 양 산       | 산림공원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129-1외 1 | 5.2      |



10월의 맛있는 숲 더하기

## 그윽한 맛과 향을 지닌 가을의 대명사, 송이버섯!

글·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산속의 소고기」로 통하는 버섯은 봄부터 가을에 걸쳐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돌아나는 일종의 곰팡이 덩어리이다. 일반 식물과는 달리 엽록소가 없어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의 뿌리나 줄기에 붙어 자란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만나볼 수 있는 송이버섯은 [조선 왕조실록]에 명나라 사신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예전부터 진귀한 식재료로 인정받아왔다. 송이버섯은 인공재배가 되지 않으며 기후에 민감하고 가을에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희소가치가 높아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유의 향기가 있는 송이,

송이버섯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나무 숲에서 자라며 추석을 전후하여 출현하는 버섯이다. 동의보감에 “송이는 산 중의 오래된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향기를 받아 자라며 모양이 아름답고 맛이 좋으며 특히 향기가 뛰어나서 나무버섯 중 으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이는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 그 향기의 이름을 신남산메칠이라고 하는데 송이를 요리할 때 물에 오래 씻으면 그 향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송이는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만주, 한국, 일본에서 주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줄기를 따라 모암(母巖)이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인 지대에서 출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송이의 주산지는 강원도 양양, 삼척, 경북의 봉화, 울진, 영덕 등으로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 외 중부지방에서는 충북의 제천, 단양과 남부지방의 경남 거창, 함양, 전북 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 산과 | 나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그 길, 임도<sub>林道</sub>

글·사진 | 남부지방산림청

건강하게 키워진 우리의 산림은 국토보전과 맑은 공기, 신선한 물을 아낌없이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준다. 또한 우리생활에 필요한 목재와 친자연적인 목재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자원의 보고이다. 이러한 숲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을 동반되어야 한다. 숲가꾸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림을 가꾸기 위한 인력, 차량 및 임업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임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게 된다. 임도는 임산물 등의 수송으로 임업경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산림 안팎에 건설되는 도로와 그 수송시설을 말한다.

그 구조에 따라 산림철도와 궤도, 삭도(索道), 자동차도, 목마도(木馬道), 유송로(流送路) 등으로 나누어진다.



2



3

### 임도의 필요성 *Necessity*

과거에는 임도를 주로 임산물 수송 목적으로 시설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조림, 육림, 수확작업 등의 체계적인 산림사업과 임업기계화를 위한 경영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시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묘목, 비료, 약재, 기자재 등 물자의 이동과 작업인부들의 통근, 국민의 산림휴양 욕구 증가에 따른 휴양림 이용, 임내 산책, 산악 스포츠와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국유림 같은 오지림의 경우에는 농·산촌 도로망과 연계하는 임도망

구축으로 산촌지역의 교통과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등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 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경북 김천 치유의숲 내 임도 3. 경북 봉화군 서백리 일원 간선임도

### 임도의 기능 *function*

임도의 기능은 크게 이동기능, 접근기능, 공간기능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기능은 교통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주며, 접근기능은 임지이용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으로 임내의 구석구석까지 접근하여 산림작업이나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기능은 제한된 공간을 갖는 집약적인 임업에서 집재, 집적, 주차 등의 수집된 산물의 처리 장소로 사용되며, 휴양림 등에서 생활공간으로 사용된다.

### 남부지방산림청 최초의 임도시설 *Open*

안동영림서(현 남부지방산림청) 개청 이래 공식적인 최초의 임도시설은 1970년대 중반에 봉화군 춘양면 서백리~도심리 구간의 연기매각 벌채지에 개설한 서백임도(4.4km)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설지역에 현존하는 임도이다. 이 임도는 비교적 환경사 지역이고 벌채 이후에도 조림, 육림, 보호관리 등 각종 경영관리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임도의 변화

### Change

최근에는 국민소득 증대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맑은 물과 공기가 있는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관광 위주의 휴양보다는 체험하는 형태의 산림레포츠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임도 100선에 선정된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임도와 숲길을 연계하여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82천여 명의 국민들이 방문하여 울진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년도 10월에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여 숲길탐방에 의존하던 산림휴양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임도인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임도에는 대구와 경북 동부권 지역주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김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임도를 활용한 탐방과 숲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임도는 국유림 내 송이, 산채,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의 채취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국유림 인접 지역주민들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산림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렇듯 임도는 단순히 운반의 기능을 떠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정, 일상 속 산림복지 실현에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산림의 기반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앞으로도  
좋은 변화가 있을  
임도



4-5. 지난 2017년 금강소나무숲길에서 개최한 2017년 산림청장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 Information

### \*알고가기

산림청에서는 매년 명절을 전·후하여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 묘를 찾는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유임도를 개방하고 있다. 개방기간은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고 있다. 개방된 임도는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 시 안전운행해야 한다. 또한 임산물·희귀식물 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림을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요국의 임도밀도

\* 2017년 말 기준 / [단위:m/ha]

| 국가명   | 임도밀도 | 국가명  | 임도밀도 | 국가명  | 임도밀도 |
|-------|------|------|------|------|------|
| 한국    | 3.3  | 독일   | 4.6  | 미국   | 9.5  |
| 일본    | 13   | 캐나다  | 12.8 | 핀란드  | 5.8  |
| 오스트리아 | 45   | 불가리아 | 7.5  | 노르웨이 | 6.6  |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총력 대응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11월-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2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10년간('08-'17)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2%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등산객이나 산림휴양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의 64%가 이에 해당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을 조기 선발·배치(272명)하여 산불 위험도를 고려한 입산객을 관리하고, 산불다발지역·경작지 등의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81,475ha) 및 등산로 폐쇄구간(56.4k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산림에 들어간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2015년)한 산불에 대한 국가소송 결과「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과 함께 입목피해, 산불 진화 등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청렴문화! 산림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불편함은 줄이고! 편리함은 더하는!  
산림 규제개혁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 \* 근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 17.5.28.개정, ' 17.6.3시행)
- ◆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사찰림) 내 봉안시설·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
  - \*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17.6.2.개정, ' 17.6.3.시행)

**[국민·기업 불편 해소]**

- ◆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가능하도록 개선
  - \*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제1항 별표8 (' 17.6.2.개정, ' 17.6.3.시행)
- ◆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농지로 개간할 수 있도록 허용
  - \* 근거법령 : 산지전용시 기준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 18.2.28.개정·시행)

**탐방 안내**  
Soopfolk에 관한 안내문은 '남부지방산림청'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Q1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20)에 문의바랍니다.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www.facebook.com/koreasouthforest](https://www.facebook.com/koreasouthforest)